

KOSME

이슈포커스  
2023-2호

#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2023. 06 |

KOSME  
이슈포커스



**동향조사 요약** ..... 4

---

**01**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개요 ..... 6

---

**02**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조사 세부 내용 ..... 8

스타트업 체감 생태계 동향 및 경영여건 ..... 8

스타트업 지원 정책 수요 ..... 10

스타트업 정의·기준 제도화 필요성 ..... 14

---

**03** 정책적 시사점 ..... 16

**국내 산업동향 및 현장사례** ..... 18

#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내 용															
<p>1</p> <p>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경영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는 경제·금리상황(86.9%) &gt; 투자·시장상황(82.1%) &gt; 스타트업 운영(73.7%) 순으로 악화 응답, 호전 응답은 1.6% 수준에 불과</li> <li>경영여건은 자금사정(61.5%) &gt; 경영환경 전반(50.0%) &gt; 매출(43.6%) 순으로 악화 응답</li> <li>스타트업 생태계 및 경영환경 전반이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비용(인건비, 원자재) 상승, 투자 위축,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악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을 비롯한 인력·고용, 공급망 안정화, 국내외 투자유치, 지방 인력 양성 지원 확대 필요</li> </ul> </li> </ul>															
<p>2</p> <p>스타트업 지원 정책 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타트업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는 창업 1~3년 이내 등 창업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1~3년(28.5%), 창업 전(26.3%), 창업 1년 이내(17.9%) 등의 순</li> </ul> </li> <li>스타트업 정책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는 창업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3~5년(36.9%), 5~7년(22.1%), 7~10년(16.7%), 1~3년(13.5%) 등의 순</li> </ul> </li> <li>스타트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사업비, 후속지원 정책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지원(81.1%), 후속지원 정책사업 연계(43.6%), 창업공간 제공(25.0%), 제품개발 지원(18.3%), 네트워킹(8.7%), 창업코칭·멘토링(4.8%), 해외진출(4.2%)</li> </ul> </li> <li>스타트업 지원 정책 수요 분석 결과,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및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전) 창업 역량교육, 정부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등 창업 준비 지원 필요</li> <li>(창업 3년 이내) 사업모델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시드 확보(펀드 조성,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경영전략·기술 전문 코칭 등 사업화 연계지원 강화 필요</li> <li>(창업 3~5년) 데스밸리와 초기창업 정책 지원 종료 시점이 맞물려 정책 부족 체감도가 가장 높아, 정책 지원 확대 및 성장 관점의 연속적 지원 강화 필요</li> <li>(창업 5~7년) 사업 안정화 및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시설 확충, 기술·제품 고도화, 국내외 투자유치 등 스케일업 지원 확대 필요</li> <li>(창업 7~10년)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신규 투자 등이 필요한 시기이나, 창업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정책 공백 보완 필요</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애로요인 및 중점 지원방안 〉</p> <table border="1" data-bbox="427 1756 1385 1980"> <thead> <tr> <th>생애주기</th> <th>창업준비기</th> <th>생존기(1~3년)</th> <th>성장기(3~7년)</th> <th>성숙기(7년~10년)</th> </tr> </thead> <tbody> <tr> <td>애로요인</td> <td>사업기반 부족 (사업화 역량 정보 등)</td> <td>아이템 개발 후 시장 진입 장벽</td> <td>데스밸리 정책 지원 부족</td> <td>시장경쟁력 개발 정책 지원 공백</td> </tr> <tr> <td>지원방안</td> <td>창업 역량 교육 정책 정보 제공</td> <td>시드확보, 실전코칭 사업화 연계지원</td> <td>제품·기술 고도화 투자·스케일업 확대</td> <td>新사업 다각화 지원 브릿지펀드 등 공백 보완</td> </tr> </tbody> </table>	생애주기	창업준비기	생존기(1~3년)	성장기(3~7년)	성숙기(7년~10년)	애로요인	사업기반 부족 (사업화 역량 정보 등)	아이템 개발 후 시장 진입 장벽	데스밸리 정책 지원 부족	시장경쟁력 개발 정책 지원 공백	지원방안	창업 역량 교육 정책 정보 제공	시드확보, 실전코칭 사업화 연계지원	제품·기술 고도화 투자·스케일업 확대	新사업 다각화 지원 브릿지펀드 등 공백 보완
생애주기	창업준비기	생존기(1~3년)	성장기(3~7년)	성숙기(7년~10년)												
애로요인	사업기반 부족 (사업화 역량 정보 등)	아이템 개발 후 시장 진입 장벽	데스밸리 정책 지원 부족	시장경쟁력 개발 정책 지원 공백												
지원방안	창업 역량 교육 정책 정보 제공	시드확보, 실전코칭 사업화 연계지원	제품·기술 고도화 투자·스케일업 확대	新사업 다각화 지원 브릿지펀드 등 공백 보완												

3  
스타트업  
기준 및 정의  
제도화

- ◆ 불명확한 스타트업 정의·기준에도 불구하고, 애로가 없다는 기업이 68.9%로 조사되었고 특별히 제도화가 불필요하다는 기업도 43.6%
  - 불필요한 사유로는 현행기준 만족(53%), 스타트업 분류기준 획일화 및 정부제재 심화(35%), 다양성 및 창의성 제한 우려(12%) 등
  - 스타트업 정의는 업종·업력에 제한이 없는 미국 개념을 가장 선호(29.2%)

〈 주요국별 스타트업 정의 〉

구분	내 용	응답률
미국	업력 무관, 혁신적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통해 확장하려는 기업	29.2%
한국	업력 7년 미만, 기술기반업종 영위기업 (제도적 정의 無)	21.8%
EU	업력 10년 이내, 상품/서비스/사업모델이 혁신 기반인 기업	20.2%

\* 기타 28.8%

- ◆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56.4%)과 애로를 경험한 기업(31.1%) 대다수도 사실상 새로운 제도 신설 보다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
  - 개선 요구사항 및 현장애로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및 사업 개선에 활용

〈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 및 요구사항 〉

- 스타트업 기준 명확화 요구
  - 스타트업 기관별·사업별로 지원대상 업력 기준이 상이(7~10년 등)
  - 지원정책 공고 상에 '융합' 등 애매한 표현이 아닌 명확한 개념 기재 요청
- 평가방식 개선 요청
  - 매출·고용 등 전형적인 계량 평가에서 탈피해, 사업모델의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 도입 요청
    - \*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해 성과보다는 성장성 중심의 평가 필요
  - 상이한 아이템·사업모델들이 동일한 산업분류코드 등으로 분류 및 평가되고 있어, 세분화된 분류 기준 및 평가 방식 필요
- 평가 전문성 및 객관성 보강 요청
  - 신산업, 신사업 등 혁신 분야의 사업모델 평가(자) 전문성 강화 요청
  - 민간투자자와 정부의 평가 수준이 일치하도록 평가체계 정교화 필요
- 지원 편중 해소 및 다양한 분야 지원 확대 요구
  - 청년창업 및 초기 창업에 지원 정책이 집중되면서 성장단계의 자금난 등이 심화되고 있어, 창업 후기 지원 확대 요청
  - IT, 기술기반업종 등에 지원이 편중되어 소외된 전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요구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요청
  -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 관련 기준 적용 완화 요청

# 01 |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개요

## ○ 조사 목적

- 업력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과 스타트업 지원 정책 수요, 스타트업 정의 및 기준의 제도화 등 정책 보완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에 활용

##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 업력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표본규모	◆ 유효응답 기준 총 312개 업체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유선, SMS, Email 등 복합조사
조사시기	◆ 2023. 05. 23 ~ 06. 02 (2주간)
자료처리	◆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여 각 항목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조사기관	◆ (주)케이티씨에스

##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소재지, 기업형태, 회사설립연도, 매출액</li> <li>◆ 종업원 수, 업종, 전통제조업 여부</li> </ul>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경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2023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 분위기 (투자/시장상황, 경제/금리상황, 스타트업 운영)</li> <l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li> <li>◆ 전년 대비 2023년 경영 상황(경영환경 전반, 매출, 자금 사정)</li> <li>◆ 전년 대비 경영환경 악화/호전 이유</li> </ul>
스타트업 지원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li> <li>◆ 창업기업 정책 지원이 부족한 시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li> <li>◆ 적절한 창업 준비기간</li> <li>◆ 창업 전 가장 필요한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li> <li>◆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적정 초기 자금 규모</li> <li>◆ 창업 또는 성장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li> </ul>
스타트업 정의·기준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경험 여부</li> <li>◆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유형</li> <li>◆ 스타트업의 기준 제도화 필요 여부 및 필요/불필요 이유</li> <li>◆ 스타트업 정의에 대한 인식</li> </ul>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수 (개)	비중 (%)
전 체		312	100.0
기업형태	개인사업자	132	42.3
	법인	180	57.7
기업 소재지 지역	서울	59	18.9
	인천/경기	64	20.5
	강원	9	2.9
	대전/세종/충북/충남	41	13.1
	광주/전북/전남	45	14.4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88	28.2
	제주	6	1.9
	업력	1~2년	48
	3~4년	123	39.4
	5~6년	113	36.2
	7년 이상	28	9.0
매출액	5억 미만	211	67.6
	5~10억 미만	46	14.7
	10억 이상	55	17.6
종업원 수	5인 미만	220	70.5
	5~10인 미만	59	18.9
	10인 이상	33	10.6
업종 (대분류)	제조업	189	60.6
	정보통신업	49	1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	14.1
	기타	30	9.6
업종 (중분류)	자동차	7	2.2
	기계 장비	54	17.3
	금속가공	4	1.3
	고무 플라스틱	11	3.5
	전자부품	18	5.8
	전기장비	16	5.1
	화학제품	29	9.3
	식품	20	6.4
	섬유제품	10	3.2
	정보처리	61	19.6
	기타 제조	40	12.8
	기타 서비스	42	13.5
	전통제조업 여부	전통제조업 해당	94
전통제조업 해당하지 않음		218	69.9

# 02 |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세부 내용

## 1 | 스타트업 체감 생태계 동향 및 경영여건

### 1 | 전년 대비 2023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 분위기 및 경영여건

- 응답 기업의 전년 대비 투자/시장상황, 경제/금리상황, 스타트업 운영 체감 결과,
  - 투자/시장상황 : 악화 82.1% > 비슷 16.3% > 호전 1.6%
  - 경제/금리상황 : 악화 86.9% > 비슷 11.5% > 호전 1.6%
  - 스타트업 운영 : 악화 73.7% > 비슷 24.4% > 호전 1.9%로 파악됨
- 응답 기업의 전년 대비 경영환경 전반, 매출, 자금사정 전망 결과,
  - 경영환경 전반 : 악화 50.0% > 비슷 28.8% > 호전 21.2%

\* 경영환경 전반 악화 이유 Top 6 (N=152업체, 유효응답 : 18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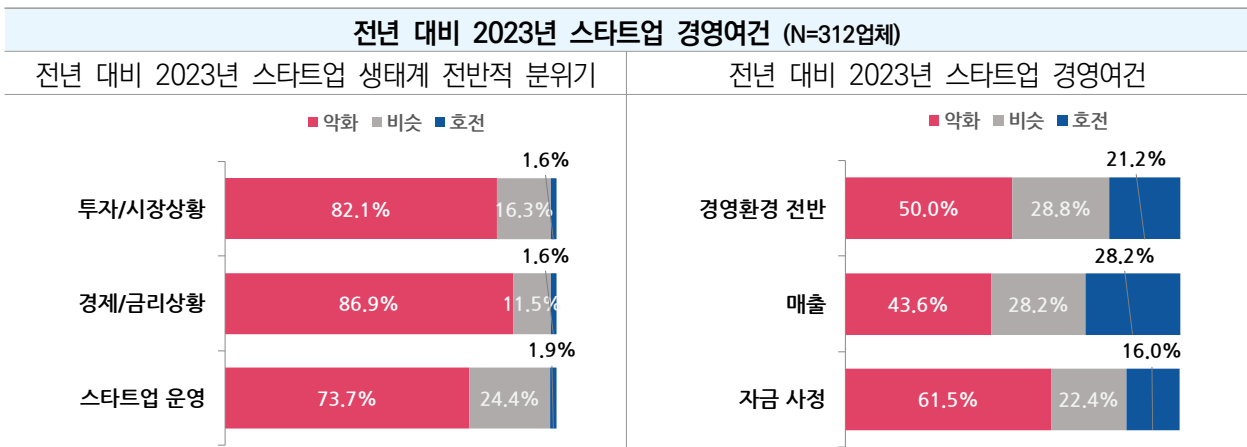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침체 ..... 53
- 금리 인상/대출 이자 부담 ..... 43
- 국내시장 축소 / 소비심리 위축 ..... 19
- 인건비 / 원자재 가격상승 ..... 17
- 코로나19 여파로 지속적인 영향 ..... 12
- 투자 상황 악화 ..... 11

\* 경영환경 호전 이유 Top 3 (N=66업체, 유효응답 : 61개)

- 사업 분야 확대 / 성장단계 / 신규 계약 성사 / 매출 증가 / 추가 고객 확보 ..... 40
-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 / 생존을 위해 노력 중 ..... 4
- 코로나 이후로 수요 증가 ..... 4

매출 : 악화 43.6% > 비슷 28.2% = 호전 28.2%

자금 사정 : 악화 61.5% > 비슷 22.4% > 호전 16.0%로 파악됨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 저금리 대출 지원’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인력·고용 지원 등 확대’,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확대’, ‘실질적인 멘토링 / 전문분야 기술 멘토 지원’, ‘투자 자문 / 해외투자 유치 지원’, ‘사업화 교육 / 창업 교육시스템 확대 / 기업 역량 강화’, ‘R&D /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제기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N=312업체, 유효응답 36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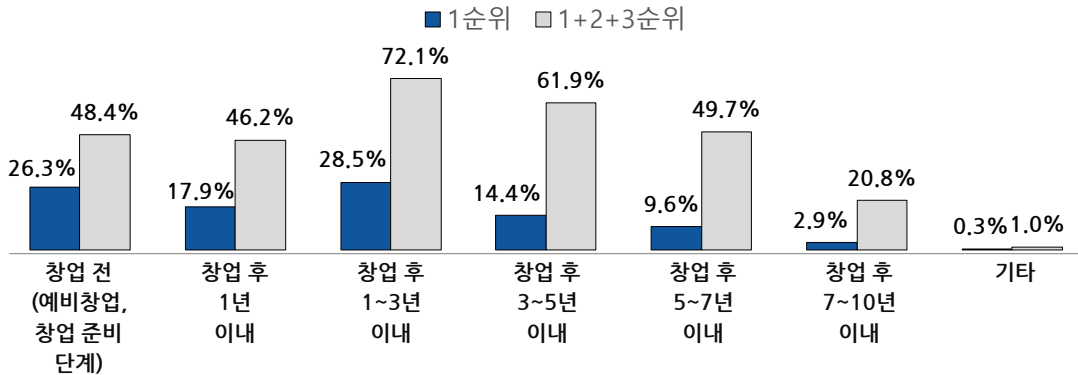
◆ 자금지원 확대 / 저금리 대출 지원 .....	148
◆ 인력·고용 지원 등 확대 .....	32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확대 .....	22
◆ 실질적인 멘토링 / 전문분야 기술 멘토 지원 .....	15
◆ 투자 자문 / 해외투자 유치 등 지원 .....	14
◆ 사업화 교육 / 창업 교육시스템 확대 / 기업역량 강화 .....	12
◆ R&D / 기술개발 지원 확대 .....	12
◆ 창업공간 지원 확대 .....	11
◆ 네트워크 지원 /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 / 교류의 장 마련 .....	11
◆ 꾸준한 정책 / 단계별 정책 지원(연속성) / 업력별 지원정책 세분화 .....	10
◆ 공정한 사업체 선별 / 평가위원 전문화 / 평가제도 개선 .....	9
◆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 .....	7
◆ 스타트업 아이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상품 분석평가 및 방향성 자문 .....	6
◆ 예산운영 등 자율권 부여 .....	6
◆ 청년위주의 창업지원이 아닌 전연령 동일 지원 .....	6
◆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지원정책 필요 서류 간소화 .....	6
◆ 시장 경제 활성화 / 시장의 돈이 부족함 / 자율적 시장 성장에 초점 .....	4
◆ 실패한 기업인을 재기시킬 수 있는 지원 확대 .....	4
◆ 지방 중심의 창업 기회 확대 .....	3
◆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 .....	3
◆ 전통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3
◆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라야 함 .....	2
◆ 기창업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확대 .....	2
◆ 지원정책을 이용하고 실질적인 사업 없이 지원금만 가져가는 업체 처벌 강화 .....	2
◆ 사업 분야별 지원정책 마련 .....	2
◆ 지원사업 기간이 짧아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짐 /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	1
◆ 7년 이상의 기업이 안정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1
◆ R&D에 치우친 경향이 많고 사업화 지원이 미흡함 .....	1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1
◆ 공무원들을 배제한 지원 프로그램 .....	1
◆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을 구분하여 지원 .....	1
◆ 대기업 자회사 등 진출을 제한 .....	1
◆ 스타트업 선호 분위기 조성 .....	1
◆ 스타트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애로요인을 해결 .....	1
◆ 스타트업의 정의를 설립 연도보다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음 .....	1
◆ 유행 키워드 위주의 사업 선정 행위 근절 .....	1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확대 .....	1
◆ 소수의 강소기업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원함 .....	1
◆ 균등한 지원보다는 집중지원이 필요함 .....	1

## 2 스타트업 정책 수요

### 1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 창업 후 1~3년 이내(28.5%)

- 창업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 1순위 응답 : 창업 후 1~3년 이내(28.5%), 창업 전(26.3%), 창업 후 1년 이내(17.9%), 창업 후 3~5년 이내(14.4%) 등의 순
  - 1+2+3순위 응답 : 창업 후 1~3년 이내(72.1%), 창업 후 3~5년 이내(61.9%), 창업 후 5~7년 이내(49.7%), 창업 전(48.4%), 창업 후 1년 이내(46.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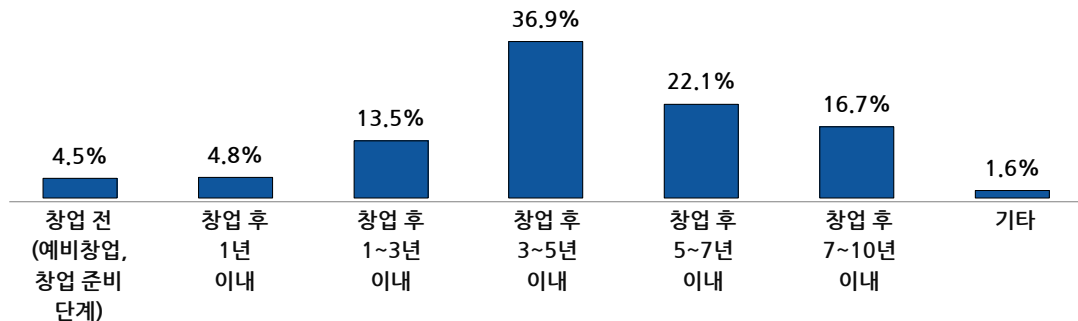
창업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N=312업체)



### 2 창업기업 정책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 창업 후 3~5년 이내(36.9%)

- 창업기업 정책 지원이 가장 부족한 시기
  - 창업 후 3~5년 이내(36.9%), 창업 후 5~7년 이내(22.1%), 창업 후 7~10년 이내(16.7%), 창업 후 1~3년 이내(13.5%) 등의 순

창업기업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N=312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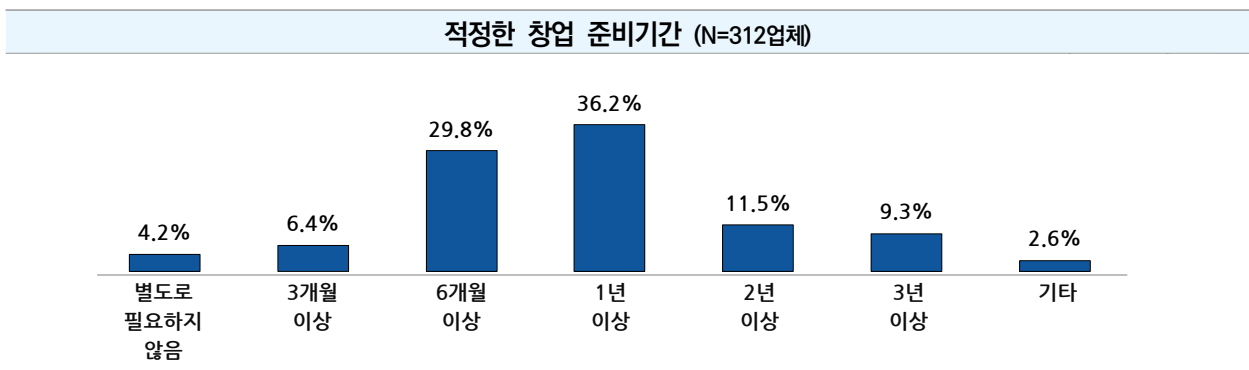
### 3 시기별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창업 전(예비창업, 창업 준비 단계)(4.5%, 14업체, 유효응답:13개)
  - 창업 전 전반적인 사업체 운영에 대한 교육 등 사업화 역량 도움이 필요함 ----- 4
  - 창업 준비단계에서 자금이 가장 필요함 ----- 4
  - 홍보 또는 인식 부족 등 창업 전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3
  - 창업 전 지원사업이 부족함 ----- 2
- 창업 후 1년 이내(4.8%, 15업체, 유효응답:14개)
  - 창업 후 초기 기술력, 인건비 등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 ----- 5
  - 초기 성과 등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사업 준비가 어려움 ----- 4
  - 초기 1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이 부족함/경쟁이 심함 ----- 3
  - 정책 지원에 대한 자료 부족 ----- 1
  - 제품 홍보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요구조건을 완화해야 함 ----- 1
- 창업 후 1~3년 이내(13.5%, 42업체, 유효응답:39개)
  - 창업기업의 존폐 / 자금이 많이 필요한 / 가장 중요한(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 20
  - 초기 1~2년 지난 후 연계사업이 부족한 시기임 ----- 11
  -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대한 어려움 / 초기 1~2년은 성과 등 증빙이 어려움 -- 4
  - 7년 이내의 기업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려움 ----- 1
  -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멘토링이 필요함 ----- 1
  - 기존 지원정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음 ----- 1
  - 창업 극 초기는 준비단계, 2~3년차 이후부터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 1
- 창업 후 3~5년 이내(36.9%, 115업체, 유효응답:115개)
  - 데스밸리 / 자금이 필요한 / 사업확장(고도화) /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 중요한 시기임 - 47
  - 1~3년 이내에 지원이 많은 / 연계사업이 부족함 ----- 45
  - 3~5년이 통상 7년 미만으로 통합되어 치열한 기간임 / 경쟁률 과다 ----- 15
  - 업종에 따라서 초기 정착하는데 3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지원이 미흡함 -- 4
  - 이미 안정화된 기업들에 지원이 많은 것 같음 ----- 1
  - 5년차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음 ----- 1
  -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새제품 개발을 요구함 ----- 1
- 창업 후 5~7년 이내(22.1%, 69업체, 유효응답:65개)
  -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정책 / 5~7년 내 지원정책이 부족함 ----- 26
  - 데스밸리 이후 도약이 필요한 시점 / 가장 도산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 21

- 설비 구축 등 스케일업 단계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임 ----- 5
  - 긴 기간 필요한 아이템이 있지만, 3년 미만, 5년 미만 등 장기적인 계획 잡기 어려움 --- 3
  - 정부 지원 융자금 상환 시기와 맞물려 있음 ----- 3
  - 매출 등 성과가 없으면 지원정책에 선정되기 어려움 ----- 2
  - 5년 이후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지만, 치열한 시장/코로나 시국 등 문제가 생김 - 1
  - 개발 자금 등으로 소진 이후 시장경쟁을 해야 하는 운영비가 부족함 ----- 1
  - 창업 초기모델 등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1
  - 탄탄한 마켓을 찾았다고 보기 힘든 단계이기 때문에 ----- 1
  - 정부 지원 기술개발은 상용화까지 평균 3년, 그 이후 사업화하는 것이 대략 4~5년 시기 1
- 창업 후 7~10년 이내(16.7%, 52업체, 유효응답:52개)
    - 7년 이후에는 투자도 지원정책도 없음 / 대부분 지원정책이 7년 이내로 규정 ----- 34
    -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보증, 자금지원, 판로개척 등 지원이 필요한 시기 ----- 6
    - 신축 설비, 고용증가 등 성장하는 시기로 현금유동성이 떨어짐 ----- 4
    - 7년 이후 업력이 많은 업체와 지원정책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 ----- 3
    - 지원정책 기간이 짧으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3
    - 투자 지원 위주의 스타트업 생태계로 어려움 ----- 1
    - 업력과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을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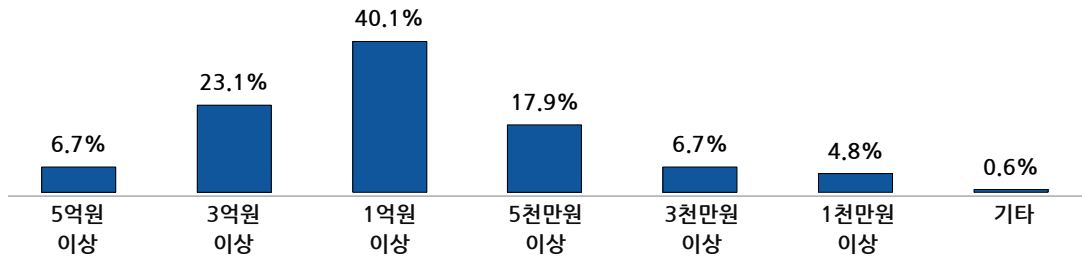
#### 4 성공적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 초기자금 규모, 도움이 필요한 분야

- 성공적 창업을 위한 적정 창업 준비기간은 1년 이상(36.2%), 6개월 이상(29.8%), 2년 이상(11.5%), 3년 이상(9.3%)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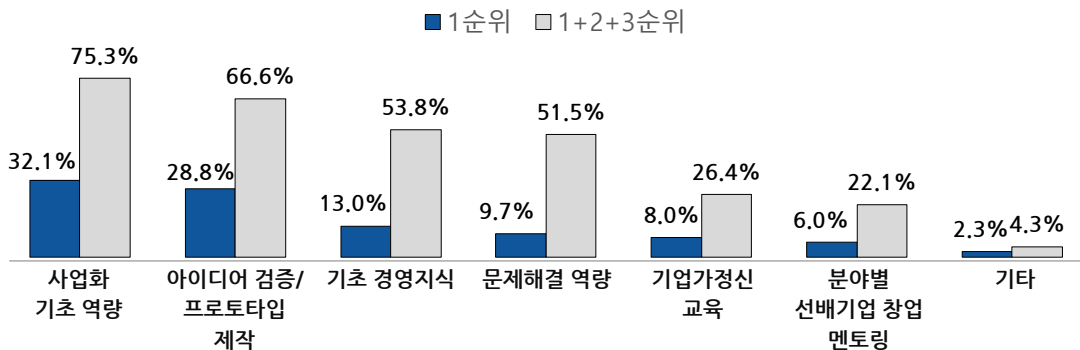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적정 초기 자금 규모는 1억원 이상(40.1%), 3억원 이상 (23.1%), 5천만원 이상(17.9%), 3천만원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적정 초기 자금 규모 (N=312업체)



- 창업 전 가장 필요한 사업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사업화 기초 역량(32.1%), 아이디어 검증/프로토타입 제작(28.8%), 기초 경영지식(13.0%), 문제해결 역량(9.7%), 기업가정신 교육(8.0%)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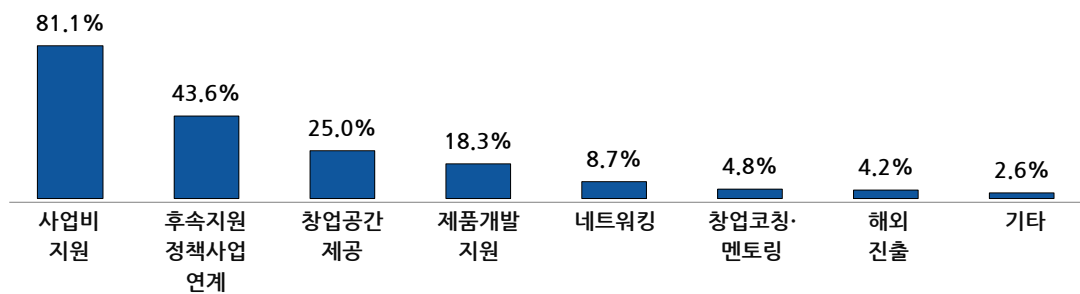
창업 전 가장 필요한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N=299업체\*)



\* 창업 준비기간 필요 응답 업체 사례수

- 창업 또는 성장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사업비 지원(81.1%), 후속지원 정책사업 연계(43.6%), 창업공간 제공(25.0%), 제품개발 지원(18.3%), 네트워킹(8.7%), 창업코칭·멘토링(4.8%), 해외 진출(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 또는 성장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N=312업체)



### 3 스타트업 정의·기준 및 제도화 필요성

- 스타트업 정의는 업력·업종 제한이 없는 미국 개념 선호
  -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업력·업종 무관, 미국 채택)(29.2%)
  - 업력 7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업력·업종 무관)(24.4%)
  - 업력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업력·업종 제한)(21.8%)
  - 업력 10년 이내의 상품, 서비스 혹은 사업모델이 혁신기반 기업(업종 무관, EU채택)(20.2%)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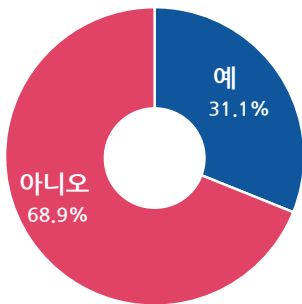
#### 스타트업 정의에 대한 인식 (N=312업체)

- 1) 업력 7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업력·업종 제한)  
 21.8%
- 2) 업력 7년 미만의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기업 포함 (업력·업종 무관)  
 24.4%
- 3) 업력 10년 이내의 상품, 서비스 혹은 사업모델이 혁신기반이며 종업원 또는 매출 증대 목표가 있는 기업 (업종무관,EU채택)  
 20.2%
- 4) 업력 무관, 혁신적인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업종·업력 무관, 미국 채택)  
 29.2%
- 5) 기타 의견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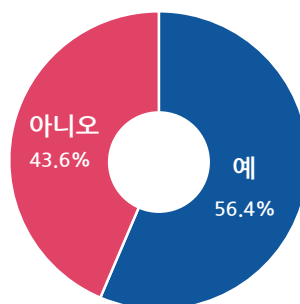
-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경험 여부
  - 예(31.1%), 아니오(68.9%)
- 스타트업 기준 제도화 필요 여부
  - 예(56.4%), 아니오(43.6%)

####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경험 여부 및 기준 제도화 필요 여부(N=312업체)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경험 여부



스타트업 정의·기준 제도화 필요 여부



•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유형

- 애로사항 유형으로는 ‘청년창업, 창업초기에 지원 집중’(18업체),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 대상의 업력 기준 등이 상이’(17업체), ‘IT나 기술기반 업종에만 지원이 집중됨’(10업체) 등의 순

스타트업 정의·기준 부재에 따른 애로사항 유형 Top 8 (N=97업체, 유효응답 100개)	
◆ 스타트업 지원 대부분이 청년창업에 집중되어 있음	26
◆ 지원사업 신청 시 업력, 업종 등 기관별 신청요건이 달라 동일한 기준이 필요함	17
◆ IT나 기술기반 업종 위주로 지원이 집중, 다양한 업종(혁신성)을 고려해야 함	10
◆ 성과중심의 상대평가가 모든 업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점 / 매출발생이 업종에 따라 늦을 수 있지만, 기준이 획일적임	9
◆ 업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업체를 분류했으면 좋겠음	4
◆ 사업분류코드가 애매함 / 세부 사업들이 사업군으로 동일하게 묶여 전문성이 떨어짐	4
◆ 기존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설비 연구시설 등 부채비율이 높아 평가기준에서 불리함	3
◆ 평가자의 역량 강화 필요	3

• 스타트업 기준 제도화 필요 혹은 불필요 이유

-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음 /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65업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많은 기업에 지원기회 제공 가능 / 효율적 지원 가능(48업체)’, 등의 순

스타트업 기준 제도화 필요한 이유 Top 6 (N=176업체, 유효응답 178개)	
◆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음 /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함	65
◆ 평가기준 세분화로 더 많은 기업 지원 가능 / 효율적 업체 선별 및 지원 가능	48
◆ 단순고용이나 사업매출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함	12
◆ 다양한 업종,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8
◆ 창업 업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 7년 이내이지만, 실제로 3년미만, 5년미만 지원이 많음	4

-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현재 만족함 / 필요성이 없음’(53업체), ‘기준이 모호함 / 제도화하기 어려움’(16업체), ‘추가적 제재가 될 것이라 생각함’(16업체) 등의 순

스타트업 기준 제도화 불필요한 이유 Top 8 (N=136업체, 유효응답 116개)	
◆ 현재 만족함 / 필요성이 없음	53
◆ 획일화할 수 없음 / 기준이 모호함 / 제도화하기 어려움	16
◆ 또 다른 제재 사항이 될 뿐이라고 생각함	16
◆ 더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	7
◆ 창의성을 제한함 / 정부지원 사업용 아이템 창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5
◆ 스타트업의 분류가 좁아질까 우려가 되어 / 스타트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 무분별한 스타트업이 생길 수 있음	3
◆ 청년으로 창업을 제한하게 될 수 있음	2

## 03 정책적 시사점

### 1 스타트업 생태계 및 경영 여건

- '23년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 및 경영 여건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악화 체감 및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 및 비용(인건비, 원자재 등) 상승, 투자 위축,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지속 악화 전망
-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의 정책 수요 파악 및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멘토링), 지방 내 창업인프라(인력, 교육, 정보, 네트워크 등) 확충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스타트업 정책 수요

- 스타트업의 지원 정책 수요가 업력별로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스타트업 업력별 애로 및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및 연속적 지원이 필요
  - 업력별 정책 수요 조사 결과
    - (창업 전) 창업 역량 교육, 창업 준비 지원 정책 관련 정보 제공 요청
    - (창업 1년 이내) 사업모델 개발 및 기술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재무·고용 성과 등 지원 요건 완화 요구
    - (창업 1~3년)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본격적인 사업화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마케팅, 인력 등 다양한 연계지원 필요
    - (창업 3~5년) 데스밸리와 초기창업 정책 지원의 종료시점이 맞물려 정책 부족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로 전반적 지원 정책 확충 필요



- (창업 5~7년)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시설 확충, 기술 및 제품 고도화,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등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창업 7~10년) 창업기업 기준을 벗어나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에서 소외되는 시기로 사업모델의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애로요인 및 중점 지원방안】

생애주기	창업준비기	생존기(1~3년)	성장기(3~7년)	성숙기(7년~10년)
애로요인	사업기반 부족 (사업화 역량, 정보 등)	아이템 개발 후 시장 진입 장벽	데스밸리 정책 지원 부족	시장경쟁력 개발 정책 지원 공백
지원방안	창업 역량 교육 정책 정보 제공	시드확보, 실전코칭 사업화 연계지원	제품·기술 고도화 투자·스케일업 확대	사업모델 혁신 지원 브릿지론 등 공백 보완

### 3 스타트업 정의·기준 및 제도화 필요성

#### ○ 스타트업 제도화 필요 의견 조사 결과 새로운 제도 신설 보다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현장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지속 수집·검토해 제도 및 사업 개선 필요

- 불명확한 스타트업 정의·기준에도 불구하고, 애로가 없다는 기업이 68.9%로 조사되었고, 특별히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도 43.6%를 차지
  - 스타트업 정의·기준 제도화 불필요 이유는 ‘현재 기준이 충분’, ‘정부 제재 사항 증가 우려’, ‘다양성 및 창의성 제한’ 등임
  - 스타트업 정의로 업종·업력의 제한이 없는 미국 개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연한 기준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보여줌

【주요국별 스타트업 정의 선호도 조사 결과】

구분	정 의	선호도
미 국	혁신적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업 (업종·업력 무관)	29.2%
한 국	기술기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업력 7년 미만)	21.8%
E U	상품·서비스 혹은 사업모델이 혁신적인 기업 (업력 10년 이내)	20.2%

-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과 애로를 경험한 기업 대다수가 새로운 제도 신설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
  - 평가대상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업종 지원(38%), 기존의 단순 고용·매출·업력 등 전형적인 평가방식 탈피(13%) 등

# 국내 산업 동향 및 현장 사례

## 1 국내 경기 동향 및 전망

### □ 국내 경기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IT 경기 위축 심화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며 하반기 이후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할 전망

- 제조업 중심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경제 회복의 파급영향 정도, IT경기 반등 시기,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 GDP성장률 전망: 23년 1.4%(2월 전망 대비 -0.2%p), 24년 2.3%(-0.1%p)

\*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2.0%)보다 낮은 -0.8%의 증가율을 기록

\* 제조업은 평균가동률(72.0% → 71.2%)이 낮은 수준에 정체된 가운데 재고율(130.4%)이 전월(117.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소비는 서비스 수요에 힘입어 지속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은 상반기에 對중·IT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주요 경제지표 】

(전년동기비, %)

구 분	GDP (조원)	전산업 생산지수			제조업		
		전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출하	재고	평균가동률
'22.1Q	468.0	5.2	5.8	5.6	1.7	11.0	78.9
'22.2Q	493.0	5.6	5.6	6.8	0.7	18.9	76.0
'22.3Q	494.2	5.5	1.4	8.5	1.3	6.5	74.2
'22.4Q	513.8	1.9	-6.4	5.8	-3.7	4.6	69.9
'23.1Q	472.2	1.3	-9.8	6.5	-4.8	9.9	70.6

### □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는 비용상승압력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가 지난해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2.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세

\* 전년동월비 석유류 가격 (%) : ('23.2월) -1.1 → (3월) -14.2 → (4월) -16.4

- 근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수요 및 고용이 예상보다 양호하며 전기·가스요금 인상 또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3개월 연속 4% 수준

- 지난해 11월 정점(4.3%)을 기록한 이후 5개월간 0.3%p 낮아지는 데 그치는 등 경직적인 흐름

## 2 수출입 동향

### 1 수출입 동향

- (수출) 5월 수출은 전년동월(616억 달러)비  $\Delta 15.2\%$  감소한 522.4억 달러
- 전년동월비 월별 수출 증감률은 '21.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월별 수출액 및 전년동기비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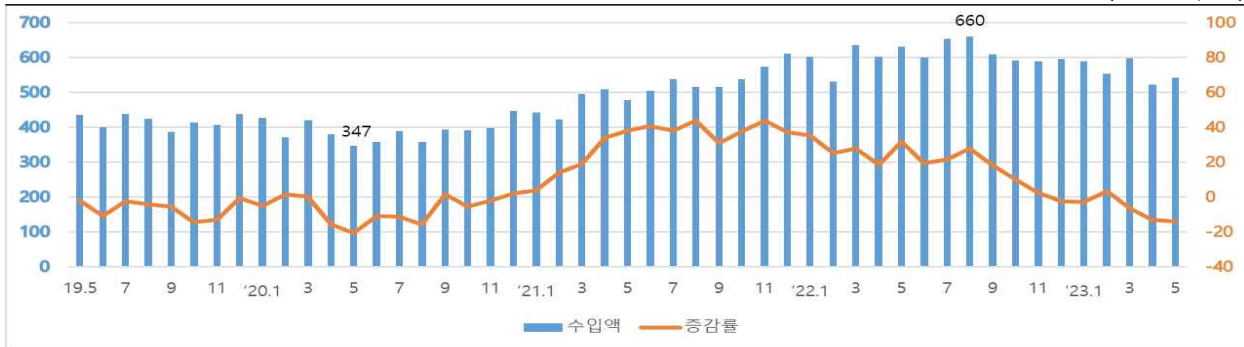
(억 달러, %)



- (수입) 5월 수입은 전년동월(632억 달러)비  $\Delta 14.0\%$  감소한 543.4억 달러
- 원유( $\Delta 16.2\%$ ), 가스( $\Delta 20.2\%$ ) 등 에너지( $\Delta 20.6\%$ )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4.0% 감소

【 월별 수입액 및 전년동기비 증감률 추이 】

(억 달러, %)



- (무역수지) 5월 무역수지는  $\Delta 21.0$ 억 달러 적자
- '23.1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5월 수출입 실적 (전년동월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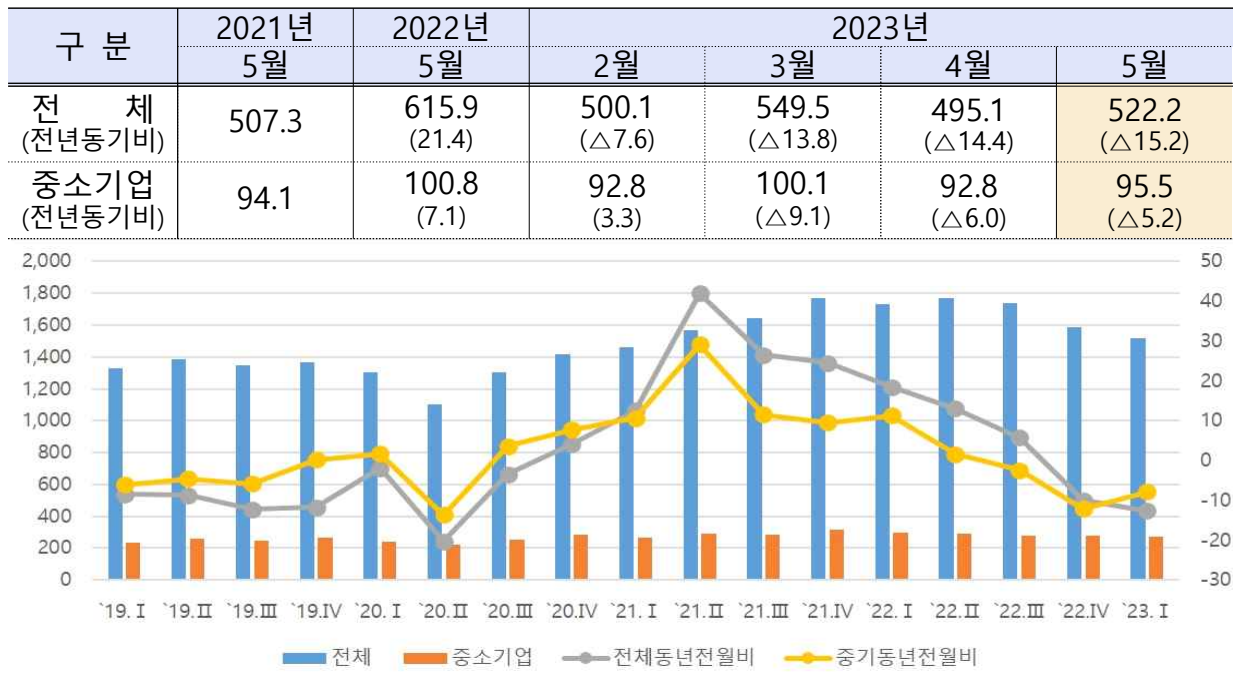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5월	2월	3월	4월	5월
수출	61,591(+21.4)	50,013( $\Delta 7.6$ )	54,967( $\Delta 13.8$ )	49,579( $\Delta 14.3$ )	<b>52,241(<math>\Delta 15.2</math>)</b>
수입	63,168(+31.8)	55,336(+3.5)	59,702( $\Delta 6.4$ )	52,232( $\Delta 13.3$ )	<b>54,343(<math>\Delta 14.0</math>)</b>
무역수지	$\Delta 1,577$	$\Delta 5,323$	$\Delta 4,735$	$\Delta 2,654$	<b><math>\Delta 2,102</math></b>

## 2 중소기업 수출동향

- '23년 5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95.5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5.2% 감소
  - \* 중소기업 전년동월비 수출 증감률(%) : ('23.3월) -9.1 → (4월) -6.0 → (5월) -5.2
- 주력 품목인 자동차(+140.8%)의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17.3%), 반도체 제조용 장비(-21.3%), 합성수지(-22.8%) 등의 수출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 증감 추이 】

(억 달러, %)



-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은 중국(△3.4%), 미국(△6.5%), 베트남(△11.5%), 일본(△2.7%), 홍콩(△4.0%) 등에서 전년동월비 감소세 지속

【 대상국별 국내 중소기업 수출액 추이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5월	연간	5월	5월	
전 체	6,444.0 (25.7)	507.3 (45.5)	6,835.8 (6.1)	615.9 (21.4)	522.2 (△15.2)	
중소기업	1,154.8 (14.7)	94.1 (36.0)	1,174.1 (5.7)	100.8 (7.1)	95.5 (△5.2)	
국가별	중국	238.9 (5.1)	19.5 (11.0)	219.3 (△8.2)	18.6 (△4.7)	18.0 (△3.4)
	미국	146.8 (14.1)	12.1 (35.8)	171.0 (16.5)	14.4 (19.4)	13.5 (△6.5)
	베트남	113.2 (14.8)	9.3 (48.7)	112.4 (△0.7)	9.8 (5.3)	8.7 (△11.5)
	일본	107.0 (12.7)	8.7 (9.8)	109.3 (2.1)	9.0 (3.6)	8.8 (△2.7)

### 3 품목별 수출 동향 및 현장 사례

#### ■ 자동차

- (완성차) SUV·친환경차 등 高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세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동월비 수출액 49.4% 상승 및 11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액 (억 달러) : ('22.5) 41.5 → ('23.5) 62.0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美) 19.6, (EU) 8.3, (중동)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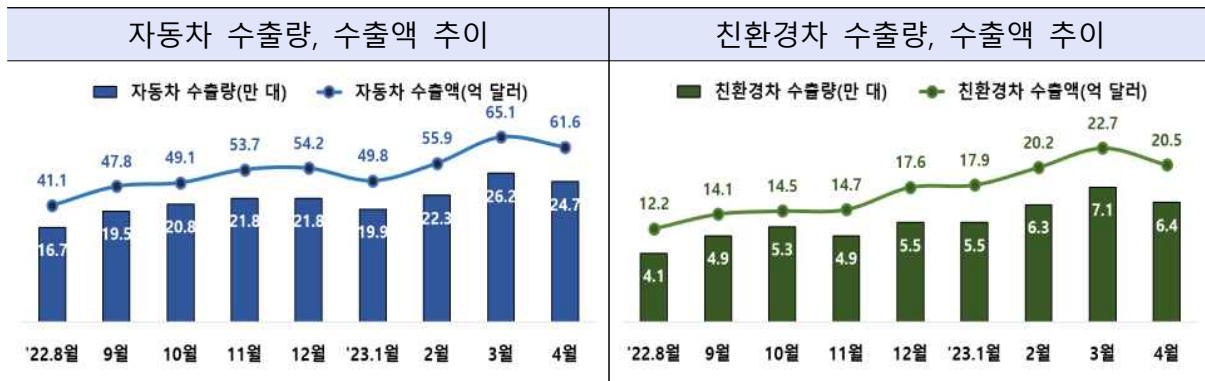
- (친환경차) '23.5월 친환경차(승용기준) 수출량은 전년동월비 49.2% 증가한 6.6만 대이며,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64.3% 증가한 21.0억 달러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수출액 20억 달러 돌파

- (차부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해소에 따른 완성차 생산·판매 증가로 현지 생산공장의 부품 수요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수출은 증가로 전환

\* 차부품 수출액 (억 달러) : ('22.5) 19.5 → ('23.5) 19.4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美) 5.8, (EU) 3.3, (중남미) 2.1

【 자동차 및 친환경차 수출량, 수출액 추이 】



####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세종) **[(주)에이치\*\*\*,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하네스 전문 제조기업으로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자동차 디지털·전동화의 가속화로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비 매출이 30~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또한, 원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기업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

- **(경북동부) [\*\*\*\*\* 주식회사, 전기차 충전시설]** 천장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에 따라 시장 상황은 양호하지만 시장 내 신규진입 업체가 증가하며 경쟁 강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충북북부) [(주)전\*, 자동차 전장부품]** 자동차용 샤프트, 조향 장치 등 제조기업으로 자체적인 브러싱 머신 개발을 통해 공구 수명을 향상시켜 원가절감을 하고 있으며 생산효율 향상을 통해 타사대비 경쟁력이 확보되어 매출이 상승 중
- **(전남) [(주)에이\*\*, 초소형 전기차]** 농업용 초소형 전기운반차 제조기업으로 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현지기업과 금년 초도 물량으로 유틸리티용/농업용 초소형 전기운반차 100대 계약 추진 중임
- **(충남) [(주)원\*, 친환경모빌리티]** 내연기관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으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차 부품 전환에 대응 중. 전기차 부품 특허를 한·미 공동으로 출원하는 한편 미국 완성차 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영업을 미국현지 공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국별 전기차 판매 전략을 설정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 중

## ■ 이차전지

-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출은 증가했으나,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배터리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배터리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 \* 이차전지 수출액 (억 달러) : ('22.5) 8.4 → ('23.5) 8.0
  -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美) 3.1, (EU) 1.3, (中) 0.4
-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17.3% 증가한 11.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1~5월 누계기준 30% 이상의 수출 호조세

##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강원영동) [\*\*\*\*세라믹(주), 이차전지 세라믹 부품]** 기존에는 발전소 및 반도체 생산 설비용 구조 세라믹이 주 매출원이었으나, 최근 이차전지 생산 설비용 세라믹 부품 개발을 완료하여 해당 분야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이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설비 관련 세라믹 부품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북) [(주)티\*\*\*, 이차전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생산장비, 이차전지 생산 장비 제조기업으로 이차전지 분야의 시장성이 높게 전망됨에 따라 매출이 '22년 대비 '23년 1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구미 반도체 산업단지 및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 유치 시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비용절감, 수주 증가도 기대하고 있음

■ ICT(정보통신산업)

- **(반도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부진으로 출하 감소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이 지속되어 5월 메모리(34.1억 달러) 및 시스템(36.4억 달러)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비 각각 53.1%, 4.9% 감소
  - (메모리 반도체) 디램 및 낸드 등의 수요 둔화·재고 누적으로 고정거래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11개월 연속 감소한 34.1억 달러 기록
    - \* 메모리 반도체 수출 (억 달러) : ('22.6) 77.9 → ('22.7) 61.7 → ('23.5) 34.1
    - \* 디램 단가 추이(\$): ('22.7)2.88 → (8~9)2.85 → (10~12)2.21 → ('23.1~3)1.81 → (4)1.45 → (5)1.40
  -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또한 5월 수출 36.4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5개월 만에 감소폭은 한 자리 수로 회복
    -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억 달러) : ('22.12) 42.7 → ('23.1) 29.0 → ('23.5) 36.4
- **(디스플레이)** OLED는 베트남 수출 확대에 따라 호조세이나, LCD 생산 축소 및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16.0억 달러 기록(전년동월비 △12.0%)
  - OLED(10.6억 달러)는 모바일용 디스플레이의 베트남 수출 확대에 따라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6.6% 증가한 10.6억 달러 기록
    - \* OLED 월별 수출액(억 달러) : ('22.11) 14.1 → ('23.4) 9.2 → ('23.5) 10.6
  - LCD 수출은 국내 생산 중단 및 사업 축소에 따라 전년동월비 31.8% 감소한 3.3억 달러 기록
    - \* LCD 월별 수출액(억 달러) : ('22.8) 5.4 → ('22.12) 3.4 → ('23.5) 3.3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스타트업 (경북) [애\*\*, 소프트웨어]** 반려동물 콘텐츠플랫폼 업체로 최근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음. 지방 소재 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시스템 및 통합 사후관리 총괄 지원이 필요
- **스타트업 (대구) [(주)\*\*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아파트 공동현관 및 엘리베이터 자동출입·호출 시스템 개발 업체로 현재 2,000개 아파트 단지 실사용자 약 200만명이 사용하며 창업 7년 만에 흑자전환. 업체가 성장할수록 거대 플랫폼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플랫폼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필요

## ■ 조선

- 경기둔화와 고금리의 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여건 악화로부터 이어진 해운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 \* 선박 수출액 (억 달러) : ('22.5) 19.6 → ('23.5) 10.2
-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EU) 1.1, (中) 0.3, (亞) 0.2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의 시행 보류에 따라 노후선 교체투자가 줄었으나, 추가적인 환경 규제 조치에 따라 선박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
- \* 선박의 제원 및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선박 운행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제재

##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경남동부) (주)원\***,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밸브** 선박엔진용 연료분사밸브 제조기업으로 글로벌 선박 생산업체 및 대형 조선소 등에 납품하고 있음. 국내 선박수주 호조로 매출이 성장하였으며, '23년 신규설비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추가 성장 기대
- **(부산) 【\*\*밸브공업(주), 조선기자재】** 대규모 산업플랜트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 기업으로,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인한 기존 노후선박·운행선단의 교체 수요로 신조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공장, 기계 등)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선업계 인력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이 필요

## ■ 철강

- 신차 생산 및 건설·건축 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철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EU의 산업활동 둔화로 인한 철강 수요 감소와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
- \* 철강 수출액 (억 달러) : ('22.5) 36.4 → ('23.5) 33.2
- \* 철강재 수출단가 (\$/톤) : ('22.5) 1,494 → ('23.5<sup>e</sup>) 1,393
-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亞) 3.7, (EU) 3.7, (美) 3.5

##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경북동부) (주)\*\*철강, 건설용 철근** 건설용 철근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 건설경기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2023년은 시장악화가 예상됨. 다만, 향후 2년간 35천톤의 관급 납품물량이 확보되어 시장축소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적고 금년 신규설비 도입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로 민수시장으로의 판매 확대 기대 중



## ■ 일반기계

- 미국·EU 친환경 정책 도입으로 관련 생산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신흥국 내 제조장비 및 기계설비 등 설비투자가 활성화되며 수출 증가 지속
  - \* 일반기계 수출액 (억 달러) : ('22.5) 44.0 → ('23.5) 44.7
  - \* 5.1~25일 수출액 (억 달러) : (美) 9.8, (中) 6.0, (인도) 1.1
  - \* 글로벌 제조업 PMI 추이 : ('23.1월) 46.8 → (2월) 47.8 → (3월) 49.3 → (4월) 50.4

## ■ 업계 동향 주요 사례

- **스타트업 (강원) [(주)\*\*기술, 의료기기부품]** 의료기기 부품 제조 기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과정에서 직원의 80%가 퇴사(10명→2명)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산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원활히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용지원 사업 개발이 필요함
- **(경남) [\*\*\*\*(주), 첨단 정밀기계]** 공작기계 부품 전문 생산기업으로 정부 2050 탄소중립정책, 기계산업 첨단화 시기에 맞춰 친환경시스템 도입 및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추진 중. 소형 풍력발전기 부품 제작을 시작하여 관련 발전기 부품 수출 확대가 기대됨
- **(경기) [(주)\*\*테크, 기계장비 조립용 제품 제조]** 기계장비 조립용 부품 제조 기업으로, 금형 및 사출성형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업분야 확장 및 글로벌화를 추진한 결과, 스마트폰 부품 분야 3,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기대됨
- **(광주) [(주)\*\*산업, 가전]**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로 전방산업인 생활가전 분야의 국내수요 둔화, 수출감소 현상이 있었으나,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경우 고품질 및 고효율을 장점으로 경기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적정 매출 및 이익을 유지
- **(인천) [(주)\*\*\*\*테크놀로지, 계측기 제조]** 전력전자계측기 제조업체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 지연(1주→10주)과 원자재 수입 지연(8주→40주) 등으로 제품생산 및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수출입이 정상화 되면서 점차 안정화 추세
- **(서울) [와\*\*\*\*(주), 전력설비]** 대규모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설비 제조기업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사업차질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최근 각국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출 증가 추세

# 참고문헌



- KDI 경제동향 (KDI, 2023.6.)
- 2023년 5월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023.5.)
- 2023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6.)
-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한국은행, 2023.4.)
-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4월, 5월, 6월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4~6.)
- TRADE BRIEF 5호 최근 수출입 특징 및 상반기 수출 여건 (한국무역협회, 2023.2.)
- 2023년 3월, 4월, 5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23.4, 2023.5, 2023.6.)
- 해운·조선업 2023년 1분기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2023.1.)
- 2023년 2월, 3월,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23.3, 2023.4, 2023.5.)
- 2023년 ICT 주요품목 동향조사 3월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5.)
- `23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6.)



**발행인** 김학도  
**편집인** 규제정책연구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52851)  
 전화 : 055-751-9723, 팩스 : 055-751-9411  
 홈페이지 : [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